



저수율 예년대비 절반 '뚝'...역대급 가뭄 실감

광주·전남 최대 식수원 주암댐 가보니

낮아진 수위 흠비탈·돌벽 드러나 곳곳 마른땅
現상태 '경계' 불구 언제든 '심각' 격상 우려
수자원공사 "가정에서 물 절약 노력 절실" 당부

"현 추세대로라면 '심각'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을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일 불볕더위와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광주·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이 말라가고 있다. 저수율이 예년보다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 부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비상이 걸렸다.

22일 오전 순천 주암댐. 댐 가장자리의 흠비탈과 돌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댐 곳곳은 마른 땅이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은 상태였고 수면 일부는 녹색 빛을 띠기도 했다.

주암댐 수문부터 보성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강변 가장자리엔 '자갈밭'인 것 마냥 수면 아래 있던 돌이 드러난 상태였다. 하천 곳곳도 밀바다에 환해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 '역대급 가뭄'을 실감케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휴일 사이 댐 유역엔 18mm 가

량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저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암댐 저수율은 3.23%에 불과하다. 예년의 54% 수준이다.

낮은 저수율의 원인으로 올해 들어 계속된 가뭄이 꼽힌다.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가 집계한 올해 주암댐 유역 강수량은 약 700mm로 예년의 67.5%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해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수자원공사 주암지사 측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언제든 용수 공급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암댐 용수 공급 대응 단계는 '경계'로 지난달 18일 이후 36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직 최고 대응 단계인 '심각'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저수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심각 상태에 진입할 경우 경계 단계 감축량에 더해 생·공용수 실사용량도 감축된다. 주암본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광주나



수위 낮아진 주암댐 광주·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이 예년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수율을 보이며 가정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 부족 문제로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이 비상이다. 사진은 22일 수심이 낮아져 현재 경계 단계인 주암댐. /안재영기자

나주, 목포 등 전남 서부지역과 조절지댐의 영향을 받는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 권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통제소, 각 지자체와 협의해 물 사용량을 자체 조절하며 물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물 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중호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

운영과 차장은 "몰아서 빨래 하거나 변기 물탱크에 벽돌 넣기, 양치할 때 수도 잠그고 하기 등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원/달러 환율 '폭주' 한때 1천34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폭주하고 있다. 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4개월 만에 1천330원을 돌파해 개장한 뒤 한때 1천340원선까지 넘어섰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2시께 전 거래일 증가보다 14.3원 오른 달러당 1천340.2원까지 올랐다가, 1천340원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갔으며 최종 1천339.8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환율은 1천330원을 넘는 1천335.5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다 오후 들어 1천340원대를 넘어섰다.

환율이 1천3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천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p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

LPR은 18개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해 평균을 낸 수치로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사실상 LPR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 데 따라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천300원대에 올라섰고, 지난달 6일과 15일 각각 1천310원과 1천320원을 차례로 깨며 연고점을 높여왔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추이



好실적 하나 없다...암울한 광주 경제

서비스업 생산·수출 등 전국 평균 밑돌아...고용률 유일 감소

●호남통계청 '2분기 지역 경제동향'

광주의 경제 동향이 어둡다. 2분기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등 경제 활성화 부문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고용률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4.1%)을 밑돌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광주는 전년 동기 대

비 3.8% 늘었지만 전국 평균(5.4%)에는 못 미쳤다. 건설 수주 또한 전국 평균은 16.2% 상승한 것과 달리, 광주는 건축·토목 수주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4.6%나 줄었다. 이는 세종(-63.6%)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특히 광주의 고용률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하며 악화된 고용 상황을 보여줬다. 광주의 2분기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기(58.7%) 대비 0.1%p 하락했다. 핵심 고용층인 30대(-2.5%p), 40대(-2.4%p) 모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고용률은 1.7%p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전국 평균 0.2% 감소한 소매 판매의 경우 광주는 8배 수준인 1.6% 줄었다. 수출 역시 광주는 전국 평균(13%)보다 낮은 12.1% 증가에 그쳤다.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5.4%)을 웃도는 5.5%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7.1%)도 전국 평균 상승분(6.6%)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에서만 20대(1천249명)와 50대(496명)를 중심으로 총 2천541명이 순유출됐다. 이는 비슷한 인구 수인 대전 순유출 1천12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양시원기자

"농협·수협중앙회 주사무소 농어촌에 뒤야"

김승남 의원, '농협법'·'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도가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수협중앙회 주사무소를 농어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안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사무소를 두

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수협중앙회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수협중앙회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Today

- 송감석 지도부진입 가능할까 4면
-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 안세영 세계개인선수권 금도전 16면

제9회 무등산 문학 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재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9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2년 6월 2일 ~ 8월 30일까지
- 입상자 발표 : 2022년 9월 15일(목)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적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 최

후 원
